

보도설명자료 (‘19. 12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솔베이의 특수 폴리머 투자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,
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중임
(한국경제 12.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솔베이의 ‘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 설립’ 관련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투자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님
- ◇ ‘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2.2일 기준으로 “5년 연속 200억불”을 달성했으며 장기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◇ 12월 30일 한국경제 <한국 투자하려던 솔베이, 규제에 놀라 싱가포르行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솔베이 경영진이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껴 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 투자처로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를 결정했다고 설명함
- 기업규제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‘19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3분기 누적 134억8천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.8% 급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솔베이 측에 확인한 결과 ‘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 설립’과 관련하여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투자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님
- 솔베이 측은 동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시기, 투자지역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

-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12.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하여 “5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불”을 달성함
 - * (‘15) 209.1 → (‘16) 212.9 → (‘17) 229.4 → (‘18) 269.0 → (‘19.12.2) 203.1억불
- ‘19년 연말까지 실적은 ‘17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장기적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김규성 과 장(044-203-4080)
문성용 사무관(044-203-4089)